

「계축일기」의 종결 연구

김보현

충북대학교 교양교육본부 초빙부교수

목차

- 1 갈등의 이야기와 독자의 기대
- 2 이야기의 구성과 종결의 기능
- 3 「계축일기」의 종결들
 - 3.1 서사의 종결
 - 3.2 질문의 종결
 - 3.3 텍스트의 종결
- 4 「계축일기」의 종결과 독자의 읽기

본 연구에서는 「계축일기」의 종결을 세 가지 영역-서사·질문·실물 영역에서 분석하고 종결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주요 갈등이나 문제를 충분히 해소했는지, 텍스트 읽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문들에 답을 찾았는지, 물질적 텍스트가 완결되었는지에 등에 대해 답할 때, 우리는 읽기가 ‘종결’되었다고 말한다. 각 영역의 종결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상호적으로 독자가 도출하는 텍스트의 총체적 의미를 구성하는 의미 요소들로 기능하는 것이다.

「계축일기」의 다른 판본인 「서궁일기」의 종결에는 다른 내용이 덧붙여 있다. 두 판본의 실물적인 종결은 갈등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끼쳐 텍스트의 서사적 결말의 차이를 도출할 수 있고, 주제적 국면에 대한 독자의 총체적 판단을 변형할 수도 있다. 「계축일기」들의 종결을 (1)텍스트가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억울함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종결, (2)텍스트 속 악인들에게 구체적인 징벌을 내리는 종결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장르 인식과 같은 텍스트의 특성에 대한 독자의 이해도 다른 종결을 도출할 수 있다. 「계축일기」와 「서궁일기」의 종결의 차이를 덧붙임 혹은 삭제로 보는 입장의 경우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종결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결을 도출하고 선택한다는 것은 텍스트를 읽는 독자가 종결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종결들은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요소로 개별적 혹은 상호 협력 관계를 지니며, 특정 독자들의 특정 종결은 텍스트 구성요소들 간 의미작용의 결과물인 것이다.

국문핵심어: 「계축일기」, 「서궁일기」, 종결, 서사, 주제화, 독자

1 갈등의 이야기와 독자의 기대

「계축일기」는 갈등의 텍스트다. 「계축일기」의 갈등은 텍스트를 시작하는 출발점에서부터 명확히 드러난다. 독자들에게 ‘계축’년의 옥사를 상기시키는 「계축일기」라는 제목은 차치하더라도, 누구에게든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낙태’를 텍스

트의 모두(冒頭)에 던져놓는 것은 이 갈등이 진실로 첨예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다.

(1) 만력 임인년에 중전께 태기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광해군의 장인인 유자신이 그 소문을 듣고 중전을 놀라게 하여 낙태시키려 하였다. 그래서 대궐에 돌팔매질도 하고, 어떤 때에는 궁궐 사람들을 꿰어 내인의 측간에 구멍을 뚫고 나무로 쭈셔대며, 궁궐 밖에 명화 강도가 나타났다고 소문을 퍼트렸다.(19쪽) (...) 유자신은 동궁을 모시고 있는 무리들과 정인홍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어떻게든지 동궁의 안위를 위하여 굿도 하고 점도 치도록 하게.”(21쪽) (...) 유자신과 동궁의 무리들은 대군이 탄생하시자마자 눈엣가시와 의붓자식처럼 생각하고 어떻게든 처치할 마음을 먹었다.(27쪽)¹

(1)은 「계축일기」의 첫 부분인데, “중전께 태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낙태시키고자 ‘돌팔매질’, ‘측간 공격’, ‘전쟁 헛소문 유포’ 등 심각한 위협을 감행했다는 진술로 시작한다, 이러한 흉악한 일을 꾸며 중전을 공격한 자는 유자신이고, 그의 공격은 동궁인 광해군의 안위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텍스트의 시작은 서술의 주체가 누구와 갈등하는지(중전 대 유자신), 어떤 이유로 갈등하는지(동궁 대 대군의 왕위 쟁탈)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시작에 날카로운 대립이 배치된 텍스트라면, 종결에는 이 대립의 결과나 끝이 배치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서사물로 분류되는 텍스트들에 대해 기대하는 결말양상과 유사하다.

정은임은 「계축일기」의 장르를 궁정실기문학으로 규정하면서, 「계축일기」의 ‘권선징악적’ 결말이나 허구성이 이를 소설로 규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² 특성을 정리하면서도 「계축일기」가 일정한 스토리

1 인용문은 조재현이 옮긴 현대어 번역본 『계축일기』(서해문집, 2003)을 주로 활용하고, 이 자료의 경우는 쪽수로만 표시하였다. 정은임이 교주한 『계축일기』(이회문화사, 2005)를 인용한 경우는 주석으로 표시하였다. 원전은 정은임의 책에 실린 영인원문을 활용하였다.

2 정은임은 「계축일기」 연구에서는 장르 논쟁이 중심이 된다고 하면서, 기존의 장르 규정

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도 하였다. 「계축일기」의 장르 결정이 「계축일기」를 규명하는 중요한 논의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그 논쟁의 결론이 어떠한 「계축일기」가 스토리가 있는 ‘결말’을 지닌 텍스트라는 사실에는 이견을 두지 않는다. 장경남은 「계축일기」와 같이 시간이 지난 뒤에 기록된 일기는 축일 형식을 따르고, 그 경험이 하나의 커다란 사건으로 구조화되어, 시작과 끝이 있는 기록, 서사적으로 완결성을 지닌 기록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일기의 서사성은 서사적 구성, 사실적 장면 묘사, 인물 간 묘사, 인물 간 대화 활용 등의 서술 방식에서 도출되는데, 그러한 서술 방식은 소설에 대한 독서 체험이 반영된 결과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임진록』, 「계축일기」 등은 고소설의 영향을 받은 질적 변화로부터 등장한 일기라 규정한다.³ 이러한 장경남의 논의는 기존에 이루어졌던 「계축일기」에 대한 장르 논쟁과 함께 「계축일기」가 지닌 서사성을 인정하는 것이라 하겠다.⁴

기존의 장르 논쟁은 결과적으로 「계축일기」가 지닌 서사성을 긍정하는 일로 보인다. 더구나 「계축일기」처럼 기록된 내용이 인물이나 집단 간의 갈등을 초점화한다면, 텍스트의 장르가 무엇이건, 독자들이 서사적인 것을 배제하지 않을

에 대해 정리·비판한다. 나아가 『계축일기』의 장르를 수필 영역에 속하는 궁정실기문학으로 규정한다. 정은임의 『계축일기』(이회문화사, 2005, 12-13쪽), 『궁정문학연구』(솔터, 1993, 158쪽) 등 참조.

3 장경남, 「일기와 고소설의 관련 양상」, 『고소설연구』 제45집, 고소설학회, 2018, 97-130쪽.

4 김강은, 「〈계축일기〉의 서사 공간 연구-공간 주체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80권, 2019, 137-158쪽.

김정경, 「〈계축일기〉에 나타난 선악관 고찰」, 『한국고전연구』 제1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161-195쪽.

박해인, 「『계축일기』 속 궁녀와 생육의 서사」, 『이화어문논집』 제47집, 이화어문학회, 2019, 97-123쪽.

이영호, 「서술자의 측면에서 본 〈계축일기〉의 표현 전략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제11권,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41-69쪽.

전기화, 「『계축일기』의 궁녀 재현 양상과 그 의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86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20, 209-233쪽.

정병설, 「계축일기의 작가문제와 역사소설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제15권, 한국고전문학회, 1999, 147-171쪽.

것이다. 「계축일기」에서 갈등의 서사를 읽을 수 있다면, 「계축일기」의 종결 또한 서사물적 관점에서 구성될 것이다. 이를테면 「계축일기」의 갈등에서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반주인공인가, 주인공과 반주인공이 얻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싸움은 누구의 승리로 끝날 것인지를 예측 혹은 확인하면서 텍스트를 읽는 것이다.

이렇게 갈등의 종결을 예측하면서 읽는 과정은 「계축일기」의 특정 서사를 강화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도 있다. 독자들이 텍스트에서 확인한 ‘갈등’의 발단과 전개, 위기와 해결이라는 서사 구조와 종결 양상을 예측 혹은 기대하면서 읽기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독자들이 텍스트에서 중심 플롯을 발견하고, 중심 플롯의 결말 구조에 따라 미진한 서사를 채우고, 주제를 결정하는 과정과도 일맥상통한다. 조용호는 중간부의 차이에 따라 서사체의 하위 장르가 결정되고 결말부의 차이에 따라 주제가 달라진다고 하면서, 중심 플롯을 형성하는 행위 주체의 욕망의 실현 양상, 즉 결말부의 양상에 따라 주제가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서사의 의미를 판단하는 곳은 서사체를 완독한 이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플롯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텍스트의 종결 지점에서 플롯의 의미를 뒤집을 만한 요소가 있다면, 독자는 주제를 변경할 수도 있음을 역설한다.⁵

「계축일기」와 같이 ‘시작과 끝이 있는 기록, 서사적으로 완결성을 지닌 기록’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고 편집하는 과정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저자가 「계축일기」를 쓰면서 시도한 다시 읽기에 대해 독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건과 텍스트적 사건을 종합하여 ‘또 다시 쓰는’ 읽기 작업을 시도하는 것이다. 더불어 저자가 ‘다시 쓴’ 텍스트에 의도된 종결과 사건의 종결은 독자에게 텍스트의 주제를 확정하는 중요한 의미 요소로 작동한다.

2 이야기의 구성과 종결의 기능

어떤 이야기이건 텍스트가 끝나면 이야기는 끝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텍스트 자체의 종결에서 벗어나, 텍스트의 의미를 논할 수 없다. 독자들이 텍스트의 문제들

5 조용호, 「지귀설화고-인도 및 중국 설화와의 대비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12권, 한국고전문학회, 1997, 298-230쪽.

은 텍스트가 끝나기 전에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고, 해결되는 방식에 따라 텍스트의 의미를 상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텍스트가 끝났다고 텍스트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야기는 다양한 갈등으로 얽여 있고, 어떤 갈등은 간단히 해소되고, 어떤 갈등은 끈질기게 지연되고, 어떤 갈등은 텍스트가 종결되어도 딱하니 남아있다. 이야기가 종결되었음에도 중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면, 독자들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거나, 이야기를 덧붙여 새로운 종결을 창출하기도 한다. 이야기는 이미 끝났으므로, 남은 갈등 처리는 독자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텍스트의 종결은 결국 이야기 속 갈등이 해결되는 유추 가능한 과정에서 도출되는 결말을 기준으로 ‘평가’되는 인식론적 차원의 문제로 귀결된다. 말하자면 종결은 텍스트 내 이야기(들)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면서, 텍스트의 물질적 종결과 맺는 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독자(들)의 인식론적 결과물인 것이다. 물론 독자들이 얻어낸 결론이라고 해서, 이 결론이 개별 독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독자가 구성한 종결은 텍스트로 다시 돌아간다. 텍스트가 지닌 서사의 시작, 서사의 전개와 같은 전체 서사의 흐름에 종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종결을 셋으로 나눌 수 있을 듯하다.⁶ 첫째는 서사의 주요 흐름에 놓여있는 갈등이 해결되어 주요 서사가 종결되는 것이다. 우리가 특정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을 볼 경우, 이를테면, 광해가 등장하는 경우, 임진왜란 이후, 아버지 선조와 형인 임해군, 계모 인목왕후와 갈등하고 형 임해와 동생 영창을 죽이며, 인조반정으로 폐위될 것을 예측한다. 인목왕후가 등장하면, 그녀가 18세의 나이에 아버보다 10살이나 많은 선조와 혼인하고, 광해군과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 어린 아들 영창을 잃고 서궁에 갇힐 것으로 예측한다. 이러한 예측이 가능한 것은 독자들이 인물의 이름에 연동된 서사적 공식으로 텍스트를 이해하고, 제작자는 이러한 공식을 활용하여 텍스트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시작에 광해군이 등장하고 ‘낙태’라는 단어가 제시되는 순간, 역사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독자라면, 눈앞에 놓인 이야기가 광해군과 인목왕후의 궁중 암투에 관한 것임을 단

6 포터 에벳은 바르트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대 층위의 종결과 질문 층위의 종결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포터 에벳, 『서사학 강의』, 우찬제 외 역, 문학과지성사, 2010, 115-131쪽).

번에 짐작하는 것이다. 물론 텍스트 속 인물이 우리가 아는 그 공식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우리가 보는 텍스트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거나 끝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결말에 실망할 수도, 흥미나 놀라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이 결말이 흥미와 놀라움으로 나아간다면 그 이야기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이야기를 읽어나가면서 생성되는 의문들과 이 수수께끼를 해결함으로써 도출되는 해석학적 종결, 즉 질문의 종결이다. 질문의 종결은 읽기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광해군과 영창대군의 죽음, 인목대비의 생존이라는 서사의 결말을 알고 있다고 해서, 독자가 텍스트 읽기를 끝내지는 않는다. 정은임은 「계축일기」의 해제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작품 말미에 ‘내인들이 잠깐 기록하노라.’라는 구절에서 내인들은 누구인가. 내인들이 기록한다고 명시되었는데 다른 연구자들은 인목왕후나 정명공주라고 추정하는가, 대비나 공주라면 ‘요년, 그년’과 같은 상스러운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었겠는가, 상궁의 이름은 알더라도 상궁의 종 이름까지 기억할 수 있었을까, 공주가 기록했다면 자신과 관련된 부분을 간략하게 서술할 수 있을까.⁷ 독자들은 밝혀지지 않는 저자가 누구인지 그 답을 찾기 위해, 텍스트 속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기도 하고,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와 같은 다른 역사 기록을 참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질문과 답은 이야기의 흐름과는 무관할 수 있으나, 텍스트의 주제, 의미, 가치를 찾는 범주의 것으로 본다면 이 역시 텍스트 이해의 종착지에 포함시킬 수 있다.

셋째는 텍스트 자체의 종료, 즉 텍스트 층위의 종결이다. 독자들은 텍스트의 마지막 장을 읽고, 텍스트가 종료될 때까지 스스로 던진 질문에 답을 찾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질문에 대한 답 또한 이야기 안에서 찾을 수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계축일기」처럼 현실에 존재하는 기록물을 참조할 수 있는 텍스트인 경우, 주요 사건의 결과가 명시적인 텍스트인 경우, 「계축일기」가 구현하고자 하는 종결과 독자가 해석하는 종결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텍스트의 종결이 독자가 구성하는 서사적 흐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독자들은 여기에 새로운 종결을 덧

7 정은임 교주, 『계축일기』 이회문화사, 2005, 11쪽.

붙여 텍스트를 다시 쓸 수도 있다. 이러한 ‘다시 쓰기’는 새로운 판본으로 실물화 되는 경우도 있다. 말하자면, 서사의 종결이나 질문의 종결은 텍스트의 종결과 맞물려, 텍스트 주제를 비롯하여, 텍스트 자체를 변화시키기도 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종결은 이야기의 갈등이 마무리되면서 진실을 알게 되고 이야기의 주제가 자리잡는 것을 지점이라 정리한다. 어떤 사건이나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심리적 평형 상태를 되찾는 것이다.⁸ 형식적으로는 반복되는 패턴을 깨뜨리는 것, 의미적으로 죽음과 같은 주제를 드러내는 것을 통해 종결을 형상화할 수 있다. 에벗은 종결의 의미가 단순히 주요 갈등을 해결하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종결은 서사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광범위한 수준의 기대들이나 불확실성을 함께 다루어야 하고, 독자는 그 사건들이 해결되거나 종결되기를 원하므로, 종결은 서사 안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어떤 것, 다른 아닌 욕망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어떤 종결은 줄거리 구성과 종결의 완결성이라는 기준을 포기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종결의 부재가 오히려 욕망을 정확히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⁹

독자들은 「계축일기」를 통해 구성할 수 있는 서사와 제기할 수 있는 질문들, 텍스트의 끝, 이 세 종결들을 통해 「계축일기」의 두 판본에 함의된 주제 즉 욕망의 차이를 확인한다. 또한 독자들은 서사적 흐름과 발생하는 질문으로 텍스트의 결말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서사와 결말에 질문을 던지거나, 질문과 결말로 서사를 다시 쓸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통해 텍스트의 ‘종결’이 텍스트를 수용하는 저자/독자들이 선택하는, 텍스트에 의미를 부여하는, 텍스트의 주제나 장르를 결정하는 인식의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계축일기」의 종결들

「계축일기」의 종결들의 실상은 어떠한가? 「계축일기」의 종결을 서사의 종결, 질

8 Babara Herrnstein Smith, *Poetic Closure*, University of Chicago, 1968, p.2. 조미라, 「장편 애니메이션 서사의 종결 유형 연구」, 『조형미디어학』 제15권 제1호, 한국일러스트학회, 2012, 170쪽 재인용.

9 포터 에벗, 앞의 책, 117쪽, 128-129쪽 참조.

문의 종결, 텍스트의 종결로 나누어 살펴보자.

3.1 서사의 종결

계축일기의 주요 사건은 영창대군의 강화도 유배와 죽음, 그리고 대비와 대비전 궁녀들이 겪었던 일들이다. 「계축일기」 1권에는 영창대군이 궁궐에서 쫓겨나는 과정을 상세히 제시한다. 김직재의 난과 박응서의 자백, 방정술 사건, 유자신 무리의 상소, 박동량의 상소, 대비전 침실 상궁 김씨, 영창대군의 보모상궁과 유모 환이, 침실 시녀 여옥이의 문초와 저항, 조사할 내인들을 내놓으라는 위협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당시의 대화나 편지 등을 인용하면서, 유자신의 계략을 당해낼 수 없었던 처지, 어린 영창대군이 쫓겨나가는 데도 이를 막을 수 없었던 억울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2) 그래서 왕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가장 인자한 체하며 말했다. “조정에서 영창대군을 속히 내놓으라고 날마다 성화로구나, 과인이 말하기를 ‘아직 어린 영창대군이 무엇을 알겠느냐?’ 하여도 도통 듣지 않는구나. (…) 그러다니 얼마 후 내관을 통하여 왕으로부터 전갈이 왔다. “조정에서 대군을 내어놓으라고 난리이옵니다. 끝까지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만 … 아우를 잠깐 문밖에만 내보내 주소서, 제가 나서서 신하들의 노여움을 풀겠나이다.”(73쪽)

(3) 세상에 다시 없을 큰 변을 만나 내 아비와 첫째 동생을 죽이시더니 이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내 자식의 일로 인하여 어버이께 큰 불효를 지었으니, 나 또한 천지간에 용납되지 못할 줄 압니다. 영창대군이 철이나 들었다면 나 또한 마땅히 자식을 내어주고 아비와 동생을 살려달라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대군은 아직 내 슬하를 떠나지 못하는 7, 8세 어린아이라요, 동서도 구분 못 하는 이 어린 것을 어찌 하려요.(74쪽)

(4) 대군이 궐내에 있으면 오히려 조정이 노하여 당장에 죽여버리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대비마마와 대군을 생각하여 좋은 일을 하려 했는데, 이리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는 못하겠사옵

니다. 지금이라도 내보내 주신다고 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막고 내보내지 않으시면 영창대군을 살지 못 하오리다.(77쪽)

(5) 영창대군을 곱게 살려주마 여러 날 말씀을 전하시고, 내전 또한 속이지 않겠노라고 극진한 글월을 보내왔으니, 일단 내드리도록 하겠소. 나의 이 서러움을 어디다 견주어 말할 수 있으리까.(79쪽)

인용문 (2)는 광해군이 조정의 신하들이 영창대군을 꺾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고, 대군을 밖으로 내보내면 신하들을 설득해보겠다고 했다는 전갈, (4)는 대군이 꺾 내에 있으면 조정이 노하여 내보내지 않으면 살지 못할 것이라 하면서 인목왕후를 위협하는 광해군의 편지이다. (3)은 영창대군이 슬하를 떠나지 못하는 7, 8세 어린아이인데 어찌 내보낼 수 있겠냐는 호소, (5)는 대군을 곱게 살려준다는 약속을 잊지 말기를 당부하는 인목왕후의 답서이다.

(6) 아무리 달래어 나가시자 하여도 저렇게 울고만 계시지 않느냐! 죄인이 드나드는 서소문으로 나가라 하니 아무리 어린 아기씨인들 이리하시는데 아니냐? 어찌 이렇게 퍽박하여 보채는고? 내 뵈시고 나갈 것이니 잠시 물러서 있거라. 이러는 사이 날이 저물었다. 너무나 민망하여 보채기만 하다가 결국 대비마마는 정상궁이 업고, 공주아기씨는 주상궁이 업고, 대군아기씨는 김상궁이 업었다. 그러자 대군께서 말씀하셨다. “어마마마와 누님이 먼저 서고 나는 그 뒤에 설 테야.”(86쪽)

(7) 대군의 안부는 염려 말라고 하더니 며칠이 지났는데도 소식조차 모르다니요! 대군은 어디로 갔습니까? 어찌 언약과 다릅니까? (...) 그러나 왕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 대군의 소식이 끊어진 후로 대비마마께서는 더욱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리하여 곡기도 끊고 밤낮으로 슬피 통곡하는 일로 세월을 보냈다. (...) 계축년(1613)에서 을묘년(1615)까지 콩시미를 매일 한 번씩만 드시며 “대군의 소식을 알고 싶구나!” 하고 문안 오는 내관에게 일렀다. 그러나 그는 들은 체도 안 했다.(95-98쪽)

(6)은 어린 대군이 자신이 쫓겨나는 상황을 인지하여 어마마마와 누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 울부짖는 모습, 이들을 떨어뜨려 대군만 내쫓고자 애쓰는 왕측 내인들과 인목왕후 측 내인들 간의 실랑이 장면이 해당하고, (7)은 영창대군의 소식을 알고자 하는 대비의 물음에 들은 체도 하지 않았던 왕과 내관들의 잔인함, 이미 대군이 사망했음(1614)에도 다음 해 을묘년까지 알지 못했던 인목왕후의 참혹한 상황을 대비시키는 장면이다. 인용문 (2)에서 (7)까지의 내용만 보아도, 「계축일기」가 독자로 하여금 영창대군을 내쫓고자 했던 광해군의 잔혹함에 분노하게 하고, 이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인목왕후의 고통,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대군의 슬픔에 동조할 수밖에 없도록, 다양한 서사적 기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적인 장면을 통해 인목왕후, 영창대군, 내인들에게 독자들이 진정 공감한다면, 그 슬픔과 억울함이 적절한 방식으로 풀려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한 해소는 종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계축일기」의 종결은 계축옥사, 영창대군의 죽음, 인목왕후의 유폐 등 역사적 사건을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만족할 만한가? 만족할 만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또한 「계축일기」 2권에 반복적이고 병렬적으로 제시된 내인들의 횡포로 인한 고통은 어떤 종결로 귀결되었다고 하겠는가.

(8) 계해년 삼월 십삼일 삼경에 문을 여니라. 오래 잠가 넣었으나 궁중에 기특(奇特) 거룩한 상서(祥瑞)의 일이 많으니, 늙은 내인들은 축수(祝壽)하고 저문 것들은 더욱 두려 지향(志向)을 못하더니 이렇듯 한 만고 성사가 있더라. 신유·임술년부터는 신인(神人)이 내려와 내인들 눈에 기특한 일이 많더라. 계축년(癸丑年)부터 설운 일이며, 상시 내관 보내여 저히며 꾸짖던 일이며, 박대·부도부효지사(不道不孝之事)를 니라 기록지 못하여 만분의 한 말이나 기록하노라. 다 쓰려 하면 남산의 대랄 다 버히다 어찌 다 니라 쓰며, 다 니라라 하면 신천지(新天地) 진(盡)하고 후천지(後天地) 니란들 다 네아기 삼아 보라. 내인들이 잠깐 기록 하노라.¹⁰

10 인용문 (8)은 3.3절에 인용한 원문들에 대한 교주본이다. 원문을 정은임의 『계축일기』에

(8)은 「계축일기」의 종결부이다. (8)에서는 “문이 열렸다”라는 문장으로 서궁 유폐가 종결되었음을 선언한다. 오래 갇혀있었으나 상서롭고 신령스런 일이 많아, 언젠가는 이 유폐가 해결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다. 또한 그 동안의 서러운 일을 이 기록으로는 다 말할 수 없다고도 말한다. 이러한 종결은 어떤 서사의 종결을 함의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는가. 어떤 독자들은 “계해년”, “문이 열렸다”를 통해 인조반정에 성공하여, 광해군이 폐위됨으로써 인목왕후가 승리했음을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종결에서 반복되는 말은 만분의 한 말도 기록하지 못한 것, 다 쓰려 하면 남산 대나무를 다 베어야 할 지경인 것, 이르려 하면 신천지가 다하고 후천지에 이어 말해도 다 못했다는 말이다. 여기에는 승리한 기쁨보다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말로 점철되어 있다. 이 기록을 여기서 마무리하는 서술 주체는 적을 격퇴하였다는 서사적 결말보다는 지금까지 겪었던 고통을 공유하는 일이 더 급선무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어떤 독자는 이러한 종결이 서사적 종결로는 합당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기대의 범위를 확대하여, 스스로가 기대한 방식으로 사건의 종결을 재구성할지도 모르겠다.

한편, 어떤 독자들이 「계축일기」 자체를 특정 시기의 기록이자 완료된 텍스트로 받아들인다면, 「계축일기」는 시작과 끝이 모두 현재로서, 역사적 사건 속에서 그 사건을 순간순간 경험하는 하나의 기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때 독자는 기록자와 함께 사건의 곁에서 그 순간을 지켜볼 것이다. 독자가 「계축일기」를 기록물로서 읽는다면, 이 텍스트에 기술된 내용들은 역사적 사건으로서 「광해군일기」 등과 같은 역사적 기록물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의 「계축일기」는 당시 겪었던 억울함을 전하고자 하는 욕망을 담은 것이고, 「계축일기」의 서사는 감정을 생생히 전달하고자 활용한 서술 기법으로서 서사로 기능할 뿐이다.

3.2 질문의 종결

서 가져와 이 인용문도 해당책을 인용하였다. 문단으로 나뉘어 있으나 통합하여 제시한다. 정은임 교주, 앞의 책, 173-174쪽.

텍스트를 읽을 때,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세부적인 사항들을 일일이 쫓아가며 의미를 찾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러한 세세한 읽기는 과정만이 존재할 뿐이다. 우리는 텍스트에서 필요한 것들을 추출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방식으로 읽는다. 텍스트에 기술된 정보들은 주제를 구현하기 위한 의미 요소로 변형되기도 하지만, 모든 요소가 활용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선조의 가계도에서 광해군과 영창군은 기억해도 임해군이나 순화군은 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역사적으로 중대 사건과 연루되었다고 판단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피고, 나머지는 존재 자체를 삭제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겨지는 대상과 버려지는 대상은 독자가 세운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임진왜란 당시의 매국노’와 관련된 주제라면 임해군과 순화군의 악행은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읽기는 텍스트의 의미 요소들을 발췌초록하고 재편집하는 것으로, 텍스트 혹은 독자 스스로가 던진 해석학적 수수께끼의 답을 구하는 과정이자, 텍스트의 주제나 가치를 찾아 나가는 과정인 것이다.

(9) 이 일을 빌미로 하여 5월18일 (...) 문초하라는 어명이 떨어졌다. 김상궁과 유씨는 흐느끼며 말했다. “저곳에 가서 모진 형벌을 어찌 견딜 수 있겠는가. 차라리 여기서 목매어 죽으리라!” 그러고는 목을 매달았으나 주위 사람들이 달려들어 묶은 것을 푸는 바람에 죽지 못하였다. “지금 여기서 죽으면 죄를 저지르고 자결하였다 할 것이니 나가 보아라.” 그 서러움이 어떠하겠는가(58-59쪽)

김상궁은 임진왜란 때, 겨우 열네 살의 나이로 선조 대왕의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으며 목숨을 걸고 모셨던 내인이었다. (...) 군졸들이 들이닥쳐 서문으로 끌고 나가려 하자 김상궁은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아서 말하였다. “어느 나라에서 아버의 첩을 형장 나졸의 손에 끌어내게 한다더이까? 임금도 사납거니와 그 신하들도 하나같이 사람다운 사람이 없소이다.”(60쪽)

(10) 대비전 상궁 응희(應希)를 잡아 가두었다. 응희는 선묘(宣廟)의 시비(侍婢)였는데 대비가 가장 총애하였기 때문에 맨 먼저 나국(拿鞠)을 받게 된 것이었다. 응희가 소주(燒酒)를 마시고 후원(後苑)에서 목을 매

었는데 내시가 구출하여 관리에게 넘겼다. 응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퍼붓기를, “나는 그동안 선왕을 모셔온 몸이다. 임진년 난리 때에는 김빈(金嬪) 등 여섯 사람과 함께 늘 대가(大駕) 앞에서 시중을 들었었다. 당시의 대신 윤두수(尹斗壽)·유성룡(柳成龍)·이항복(李恒福)·이산보(李山甫) 등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이 어찌 지금 임금의 녹(祿)만 먹고 선왕의 녹은 받아먹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속박하여 모욕을 준단 말이냐.” 하였는데, 듣는 자들이 귀를 가렸다. 「광해군일기[정초본]」 66권, 광해 5년(1613) 5월 18일 을해 19번째기사

인용문 (9)는 「계축일기」이고 (10)은 『광해군 일기』이다. 이 둘은 모두 광해 5년 5월 18일에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이다. (9)를 읽는 독자들은 이 극적인 장면을 읽으면서, 이것이 과장이 아니라 실제 장면을 기록한 것인지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진실로 5월 18일에 궁녀에 대한 문초가 있었는지, 김상궁과 유씨가 실제로 목을 매달았는지, 김상궁이 단순한 상궁이 아니라 선초의 첩이었음이 진실인지 등을 궁금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궁금증은 『광해군 일기』가 지닌 역사 기록물이라는 자격에 의해 일부 해소될 수 있다. 「계축일기」의 김상궁과 『광해군 일기』의 응희가 동일인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축일기」의 두 쪽에 걸친 긴 대사를 실제로 응희라는 인물이 발언한 것이 아니라, 실감 나는 기술을 위해 덧붙인 내용으로 볼 수도 있다. 「계축일기」와 『광해군 일기』의 내용 비교는 「계축일기」의 실제 기록으로서의 신뢰도를 더 높일 수도 있고, 과장된 기록으로 평가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11) 너무나 민망하여 보채기만 하다가 결국 대비마마는 정상궁이 업고, 공주 아기씨는 주상궁이 업고, 대군아기씨는 김상궁이 업었다. 그러자 대군께서 말씀하셨다. “어마마마와 누님이 먼저 서고 나는 그 뒤에 설 테야.” (….) “내가 먼저 나가면, 나만 나가게 하고 어마마마와 누님은 안 나오실지도 모르잖아. 그러니 내가 보는 데서 먼저 가오.” (….) 이때 왕의 내인인 연갑이가 갑자기 대비마마를 업은 내인의 다리를 붙들었다. 한편에서는 은덕이가 공주를 업은 주상궁의 다리를 붙들었다. 두 상

궁은 한발도 옮기지 못하게 되었다. 다른 내인들이 대군을 업은 김상궁을 앞으로 끌어내고 뒤에서 밀쳐내어 문밖으로 나가게 하고는 차비 문짝을 닫아버리니 그 망극함이 어떠하였겠는가. 어린 대군 아기씨만 문밖으로 엮혀 나가며 발을 동동 구르고 업은 사람의 등에 머리를 부딪치며 서럽게 울부짖었다.(86-88쪽)

(12) 이의를 내보내는 날에 대비가 그를 부동켜안고 차마 떠나보내지 못하였다. 주위 사람들이 온갖 방법으로 권하고 만류하자, 액문(掖門) 안에까지 안고 와서 울부짖으며 작별하였다. 호위하는 병사들이 이를 보고 듣고는 엷드린 채 일어나지를 못하고 너나없이 눈물을 흘렸다. 「광해군일기[정초본]」 67권, 광해 5년(1613년) 6월 21일 18번째 기사

(11)은 「계축일기」, (12)는 「광해군일기」이다. 이 두 인용부는 영창대군이 궐에서 쫓겨나는 장면이다. 「광해군일기」에서 “온갖 방법으로 권하고 만류하”였다 는 간단한 기록을 「계축일기」에서는 ‘대비는 정상궁이 업고, 공주는 주상궁이 업고, 대군은 김상궁이 업었다, 정상궁과 주상궁의 다리를 왕의 내인 연갑이과 은덕이가 붙들어 대군을 업은 김상궁만 대궐에서 내보냈다, 대군이 업은 사람의 등에 머리를 부딪치며 서럽게 울었다’ 등, 장면에 속한 인물들의 행동을 상세하게 서술함으로써, 지켜보는 사람들(호위하는 병사들)이 “너나 없이 눈물을 흘렸다”던 그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와 같은 「계축일기」의 구체적인 서술이 진실이라면 어떤 근거로 이를 증명할 수 있을까.

읽는 독자가 실록의 기록이나 편찬 과정과 같은 텍스트 외적 정보들을 알고 있건 모르건, 중요한 것은 독자들이 「계축일기」를 읽겠다고 선택하는 출발 지점부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계축일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계축일기」는 왜 ‘일기’인가, 「계축일기」의 내용은 모두 사실인가, 기록한 내인들은 누구인가 등과 같은 텍스트의 장르나 가치와 관련된 거시적인 질문부터, 영창대군의 죽음을 2년 동안이나 모르게 할 수 있을까, 등장하는 궁녀들은 모두 실존 인물인가, 일개 궁녀(난이)가 왕(광해군)에 대해 효성이 없고 어질지 못하다고 비난할 수 있을까, 당시 궁녀들이 상전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정치

현실에 연루되었을까,¹¹ 등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하거나 전개의 개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질문까지, 읽기의 전 과정은 생성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질문의 답이 텍스트 내부에 있거나 외부에 있을 수도 있고, 답을 찾지 못한 채 읽기를 마칠 수도 있다. 하지만 독자는 질문 없이는 독서 과정을 수행하지 못하며, 스스로가 던진 질문을 중심으로 텍스트를 재편집하는 방식으로 독서를 진행한다. 자신이 던진 질문에 답과 관련된 정보는 쏙아 두고, 그것과 관련되지 않은 정보들은 쏙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쏙아 둔 정보들로 질문에 대해 답하는 일이 종결되는 그 지점에서, 독자의 텍스트 해석, 가치 부여 등 읽기 자체가 완료되는 것이다. 이 질문의 종결은 서사의 종결과 텍스트의 종결을 연계하거나 단절시키는 중대한 요인이 되기도 하며, 각 종결들로 향하는 질문을 던져 텍스트의 주제화에도 기여한다.

3.3 텍스트의 종결

「계축일기」 두 판본의 끝부분을 살펴보자. 「계축일기」의 끝과 「서궁일기」의 끝은 같지 않다. 두 판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원문을 비교해 보자.¹²

(13) 계축년브터 설운 일이며 상시 낙관 보내여 저희며 꾸깃던 일이며 박디브도 부효지스를 니르기록지 못하여 만분의 혼말이나 기록호노라 쓰려하면 남산의 대를 다 버히다 엇디 다 니르쓰며 다 니르라 하면 선턴지 진하고 후턴지 니를들 다 네 아기 솜아보라 낙인들이 잠간 기록호노라. 「계축일기」

(14) 계축년브터 설운 일이며 상시 보내여 저히며꾸깃던 이리며 박디브효지스를 니르 기록디 못하여 만분의 혼 말이나 기록호노라 다 쓰라

11 전기화, 앞의 논문, 229쪽.

12 홍기원이 정리한 『인목대비 서궁일기』의 〈소성 왕대비 김시 대명 턴계 원년 신유 구월 일 경서〉와 이하 기록은 위치상 텍스트의 후반부이나, 「서궁일기」에 포함되는 내용은 판단하였다. 이에 정은임 교주한 『계축일기』에 실린 원문 「계축일기」(424쪽)와 원문 「서궁일기」(500쪽)의 종결을 비교하였다.

흐면 남산대를 다 버혀도 엇디 나라 쓰며 다 니르라 흐면 텃디 딛ㅎ다 다
니르랴 네 아기사마 보려 너인들이 잠간 기록하노라. 「서궁일기」

인용문 (13)은 「계축일기」의 종결부이고, (14)는 「서궁일기」의 종결부의 일부이다. 「계축일기」의 종결부는 「서궁일기」의 종결부와 부분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이들의 차이는, “상시 너관”을 “상시”로, “박딴브도”를 “박딴”로 “선턴지 진ㅎ고 후턴지 니를돌”을 “턴디 딛ㅎ다” 정도로, 「계축일기」의 몇몇 단어가 「서궁일기」에서는 삭제되어 있을 뿐이다. 두 종결부가 계축년(1613년)에 영창대군이 궁에서 쫓겨나서 유배된 일, 상시로 내관(내인)들을 보내어 괴롭혔던 일, 인목왕후가 유배된 일이 얼마나 억울했는지를 강조하고, 기록자가 내인들이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하겠다.

(15) 계해년 삼월십삼일 삼경의 문을 여니라. 으리 줌기너하시나 궁둥
의 기록 거룩한 상서의 일이 만ㅎ니 늘근 너인달은 축수ㅎ고 저든 것
들은 더욱 두려 지향롤을 못하더니 이러톳 ㅎ 만고성서 잇더라. 「계축
일기」

앞서 살핀 바, (15)는 (13), (14)의 앞 부분이다. (15)에서는 계해년 인조반정으로 유배된 인목왕후가 풀려났음을 말하고 있다. “계해년 삼월 십삼일 삼경에 문을 여니라.”로 시작하는 문장은 인목왕후 서궁 유배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계해년”과 “문이 열림”이라는 이 어구로 「계축일기」의 갈등, 영창대군의 죽음이나, 내인들의 괴롭힘 등의 중대 갈등이 해결되었는가? 이러한 미묘하고도 암시적인 종결은 (16)과 같이 갈등에 대한 명확한 해결을 욕망할 수 있다.

(16) 계해년 삼월 열사흔날 반정ㅎ야 문을 여니 흥참이구던 너인 상궁
가히 은덕이 갑이 동환이 경춘이 상궁 난이 텃복이 이 려엿 너인들은 법
대로 정형ㅎ여 죽이고 폐쥬는 강해 우리안치 ㅎ엿다가 움겨 제쥬 안치
ㅎ엿더니 텃년ㄱ지 살고 죽으니라(「서궁일기」)

(16)은 「서궁일기」에만 있는 종결 부분이다. 흥참이 굴던 내인 상궁, 가희, 은덕이, 갑이, 중환이, 경춘이, 상궁 난이, 천복이 등 여러 내인들을 법대로 정형하여 죽이고, 폐주 광해군은 강화에 안치하였다가 제주도에 옮겨 안치하였으며, 이후 자연사했다고 명확히 언급하는 것이다. 악한 나인들이 어떤 벌을 받았는지 확인 시키고, 명확히 기술된 “폐주”라는 명명을 통해 요즘말로 최종 보스의 종말을 명시함으로써, 「계축일기」의 주요 갈등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구체화한다.

(13)와 (14)에서 “박디브도 부효지스”가 있었던 일을 모두 요약하는 표현이고, “남산의 대를 다 버히다 엇디 다 니르쁘(남산의 대나무를 다 베어다 써도 다 쓰지 못함)”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표현 안에는 말할 수 없는 큰 억울함이 드러났다고 할 수도 있다. 있었던 일을 다 말하면 선천지 다하고 후천지가 다 가도 사람들이 이야기 삼아볼 것이라 하면서, 사람들이 그들이 남긴 기록을 읽고 ‘그 억울함을 알아달라’ 말하고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억울함을 알아달라는 호소 속에는 악한들이 처단되는 서사의 결말, 권선징악이라고 말하는 그 결말, 소설에서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그 결말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16)은 권선징악이라는 서사적 결말을 텍스트적 종결로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¹³

「계축일기」와 「서궁일기」의 각기 다른 텍스트적 종결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우선 우리는 이 차이를 통해 「계축일기」와 「서궁일기」가 같은 문제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초점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3), (14)의 종결이 영창대군의 죽음이나 인목왕후의 유폐, 내인들의 고초가 인조반정이나 광해군의 폐위로는 풀릴 수 없는 일, 종결되지 않는 고통으로 받아들인다면, (16)의 종결은 인물들의 고난이 악한의 처단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건으로 여기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다. 결과 (16)이 덧붙은 「서궁일기」는 악한을 처단한 것에 비중을 더하는 종결이 될 수 있다.

13 정은임 등은 『계축일기』를 원본으로 『서궁일기』를 이본으로 보는 반면(정은임, 『궁정문학 연구』, 31쪽), 홍기원은 『계축일기』는 『서궁일기』를 저본으로 하는 판본이라 주장한다.(홍기원, 『인목대비의 서궁일기』, 민속원, 2004, 57-74쪽 해제 참고) 이 차이는 『계축일기』의 암시적 종결에 문제를 의문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16)와 같은 종결로 연장되었다는 주장, 혹은 (16)과 같은 종결이 원본이라는 주장과 같은 원본 추정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다음으로 「계축일기」가 먼저 쓰인 텍스트이고 「서궁일기」가 종결을 덧붙인 텍스트로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할 수도 있다. 「서궁일기」의 제작자들은 「계축일기」에 제시된 부분만으로는 서사에서 제기되는 세 가지 중대 사건에 대한 ‘서사적 결말’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이를 (16)과 같은 종결로 보충 「계축일기」의 미흡한 ‘서사적’ 결말을 보충하겠다고 판단했다. 결과, 종결을 보완한 「서궁일기」는 「계축일기」의 ‘권선징악’이라는 이야기의 형식화된 결말을 갖게 되었다. 반대로 「서궁일기」가 먼저 쓰인 텍스트이고 「계축일기」가 종결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고 가정한다면, 「계축일기」의 편집자들이 「서궁일기」의 결말을 이야기의 관습적 종결일 뿐, 「계축일기」라는 역사 기록물이 발생시키는 장르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평가한 것이라 상상해 볼 수도 있다.

서로 다른 종결을 지닌 판본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각 이본의 텍스트 종결에 대해 재고하도록 만든다. 나아가 이 결말이 누구의 욕망에 기대고 있느냐를 문제삼는다면 서술 주체나 장르적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도록 만든다. 판본의 원본 여부를 떠나, 종결부의 차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계축일기」와 「서궁일기」의 텍스트적 종결로 구별되는 의미에 대해 살피고, 어떤 종결이 주체나 인간 욕망을 더 잘 구현하는지, 더 흥미로운지, 더 문학적인지를 고민하게 하는 것이다.

4 「계축일기」의 종결과 독자의 읽기

지금까지 세 가지 종결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는 서사의 종결, 둘째는 질문의 종결, 셋째는 텍스트의 물질적 종결이다. 「계축일기」는 이 세 종결 모두 문제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텍스트에서 제시한 주요 갈등이나 문제를 충분히 해소했는지, 텍스트의 읽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질문들에 답을 찾을 수 있는지, 물질적 텍스트로서 완결되었는지, 이 모두가 종결되었다고도, 혹은 그렇지 않은 채 끝난 텍스트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종결은 텍스트에서 확인되는 갈등과 질문에서, 읽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독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독자들은 텍스트 전체의 주제를 찾는 경우는 텍스트의 많은 부분을 배제한다. 어떤 텍스트는 제목

이나 목차 등을 활용하여 소거할 지점들을 제안하기도 한다. 「계축일기」를 ‘인목왕후의 서궁 유폐’를 기술한 것으로 정리할 때 소거되는 것들과 ‘계축옥사의 전모와 서궁의 시련’을 기술한 것으로 요약할 때 소거되는 것들은 같지 않다. 이 요약이 텍스트 자체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독자가 도모한 종결과 연동되어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읽기는 독자들이 텍스트의 일부는 남기고 일부는 버리면서 텍스트를 해석한 결과이다.

「계축일기」를 읽을 때, 「계축일기」를 서사성을 지닌 텍스트로 전제한다면, 「계축일기」의 종결은 서사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기대들이나 불확실성과 함께 다루어질 수 있다. 독자들은 서사의 진행 과정에서 기대나 불확실성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이때의 종결은 서사 안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어떤 것, 욕망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계축일기」를 사건 기록으로 규정한다면 텍스트를 읽는 동안 왕조실록을 비롯하여 같은 시기의 기록들을 참조하지 않을 수 없다. 문상궁, 중환이, 난이, 천복이 등 내인들이 겪은 일들은, 중심인물의 부가적 사건이 아니라, 그 각각이 실제성을 구현하는 근거로 작동할 것이다. 또 판본들의 텍스트적 종결의 차이는 주제적 국면에 대한 독자의 총체적 판단이나 갈등에 대한 해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독자들은 각각 종결을 수용함으로써 텍스트의 주제 및 가치를 도출하기도 하고, 종결들의 영향 관계 속에서 의미를 산출한다. 따라서 종결들의 작용은 독자들이 텍스트에서 얻어내는 의미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계축일기」들의 종결을 (1)텍스트가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억울함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종결과 (2)텍스트 속 악인들에게 구체적인 징벌을 내리는 종결로 구분한다면, 그것은 「계축일기」의 주제가 다른 방향으로 초점화된 것이다. (1)이 「계축일기」의 인목왕후, 내인들의 고난을 드러내는 데 목적을 둔다면, (2)는 갈등의 원인을 명시하고, 악을 징치함으로써 갈등이 종료되었음을 확인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1)에서 「계축일기」의 서술적 주체의 고난이 등장 인물들의 고난과 동일시하고자 하는 욕망이 드러난다면, (2)는 등장 인물들의 고난의 형상화에 몰두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텍스트를 어떤 장르로 인식하는가와 같은 독자의 텍스트에 대한 이해의 범위도 종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계축일기」와 「서궁일기」의 종결의 차이를 덧붙임 혹은 삭제로 보는 입장들은 편집자가 텍스트의 특성

을 이해하고 범주화하는 방향에 따라 종결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결을 선택한다는 것은 텍스트를 읽는 독자가 종결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확인한 것처럼, 독자들이 「계축일기」의 종결을 (1)로 「서궁일기」의 종결을 (2)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특정한 종결이 다른 종결을 좌우하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 종결들은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요소이며, 각 종결은 위계적인 것이기보다 개별적이거나 상호 협력적이다. 결국 특정 독자들의 특정 종결은 텍스트 구성요소들 간 의미작용의 결과물인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국사편찬위원회, 「광해군실록[정초본]」,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정은임 교주, 『계축일기』, 이회문화사, 2005, 11-500쪽.

조재현 옮김, 『계축일기』, 서해문집, 2003, 27-98쪽.

홍기원, 『인목대비의 서궁일기』, 민속원, 2004, 57-74쪽.

단행본

정은임, 『궁정문학 연구』, 솔터, 1993, 31쪽.

에벗, H 포터, 『서사학 강의』, 우찬제 외 역, 문학과지성사, 2010, 115-131쪽.

논문

김강은, 「〈계축일기〉의 서사 공간 연구-공간 주체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80권, 2019, 137-158쪽.

김경애, 「서사의 갈등구조와 수용자의 미의식 연구-드라마 〈VIP〉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91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21, 131-162쪽.

김정경, 「〈계축일기〉에 나타난 선악관 고찰」, 『한국고전연구』 제1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161-195쪽.

- 김진영, 「〈하생기우전〉의 결말구조 양상과 그 의미」, 『열린정신 인문학 연구』 제 19권 제2호, 원광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2018, 181-206쪽.
- 박해인, 「『계축일기』 속 궁녀와 생육의 서사」, 『이화어문논집』 제47집, 이화어 문학회, 2019, 97-123쪽.
- 성기동, 「癸丑日記의 製作過程에 關한 考察」, 『研究 論集(중앙대학교)』 제7집 제 1호, 中央大學校 大學院 院友會, 1988, 9-41쪽.
- 엄태식, 「애정전기소설의 서사 문법과 결말구조」, 『東洋學』 53, 2013, 1-28쪽.
- 이영호, 「서술자의 측면에서 본 〈계축일기〉의 표현 전략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제11권,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41-69쪽.
- 장경남, 「일기와 고소설의 관련 양상」, 『고소설연구』 45, 고소설학회, 2018, 97-130쪽.
- 전기화, 「『계축일기』의 궁녀 재현 양상과 그 의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 86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20, 209-233쪽.
- 정병설, 「계축일기의 작가 문제와 역사소설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제15권, 한국고전문학회, 1999, 147-171쪽.
- 조미라, 「장편 애니메이션 서사의 종결 유형 연구」, 『조형미디어학』 제15권 1호, 한국일러스트아트학회, 2012, 167-180쪽.
- 조용호, 「지귀설화고-인도 및 중국 설화와의 대비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 12권, 한국고전문학회, 1997, 283-310쪽.
- 최유희, 「SBS 드라마 〈토지〉 연구-서사 리듬 분석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2집-1호(통권 37호), 대중서사학회, 2016, 365-403쪽.

Abstract

A study on the Conclusion of *Gyechuk-Ilgi*

In this study, the Conclusions of *Gyechuk-Ilgi*(『계축일기』) are analyzed across three domains: the narrative, the questioning, and the text. We say that reading is ‘concluded’ when we have sufficiently resolved major conflicts or issues, found answers to ques-

tions that may arise during the text reading, and ensured that the material text has come to a close. Conclusions in each area function as elements of meaning that individually or interactively constitute the holistic significance derived by the reader from the text.

The conclusion of *Seogung-Ilgi*, another edition of *Gyechuk-Ilgi*, contains additional content compared to the original version. The tangible conclusions of these two editions can influence the interpretation of conflicts, resulting in differences in the narrative outcomes of the texts. This, in turn, may transform the reader's holistic judgment on the thematic junctures. The conclusions of *Gyechuk-Ilgi* can be categorized into (1) a conclusion that desires the text to escape from adversity and seeks acknowledgment of injustice, and (2) a conclusion that imposes specific punishments on the villains within the text. The reader's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text, such as genre, can contribute to the derivation of conclusions. Perceiving the differences in the conclusions of *Gyechuk-Ilgi* and *Seogung-Ilgi* as additions or deletions reflects a perspective that considers the choice of conclusion based on the editor's intent.

To choose a conclusion means that the reader, engaged in reading the text, determines the conclusion. Conclusions serve as elements that constitute the meaning of the text, either individually or in mutually cooperative relationships. Specific conclusions by certain readers are the products of the semantic interactions among the constituent elements of the text.

Key words: *Gyechuk-Ilgi*, *Seogung-Ilgi*, conclusions, narrative, thematic perspective, reader

논문제출 / 2023. 11. 15.

논문접수 / 2023. 11. 23.

게재확정 / 2023. 12. 09.